

지니매거진

JINI Magazine

VOL.32
AUGUST 2019



 JINAIR

CONTENTS

여행은 온몸으로 만끽하는 컬러 테라피입니다. 늘 접하던 색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빛깔의 풍경 속으로 뛰어드는 경험이니까요. 똑같이 푸른색 계열의 바다라도 절푸른 동해를 볼 때와 정다운 서해를 볼 때가 다르고, 산호초가 비치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때의 마음은 더욱 새롭습니다. 남국의 햇볕과 문화가 빛어낸 신선한 색채가 파도치는 곳으로 떠나, 무더위 속 일상에 축 처져 있던 감각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진에어와 함께 떠나요, 컬러 테라피 바캉스!**

02 첫 번째 이야기 - 세상 모든 색의 축제 조호르바루

사원의 오색 유리부터 밤하늘 반딧불이까지
전통 유산의 친연한 빛
반딧불과 소원 풍등
알록달록 테마파크
유럽과 말레이시아의 6백 년 혼색, 말라카

05 두 번째 이야기 - 낙원의 롤리팝 클락

활력과 휴식의 푸른 빛
원색의 물보라 속으로!
밤바다 밝히는 야시장과 별미

07 지니만보 - 푸테리 하버 편

08 지니퀴즈

09 광고

10 Let's 지니플레이

세상 모든 색의 축제

조호르바루



사원의 오색 유리부터 밤하늘 반딧불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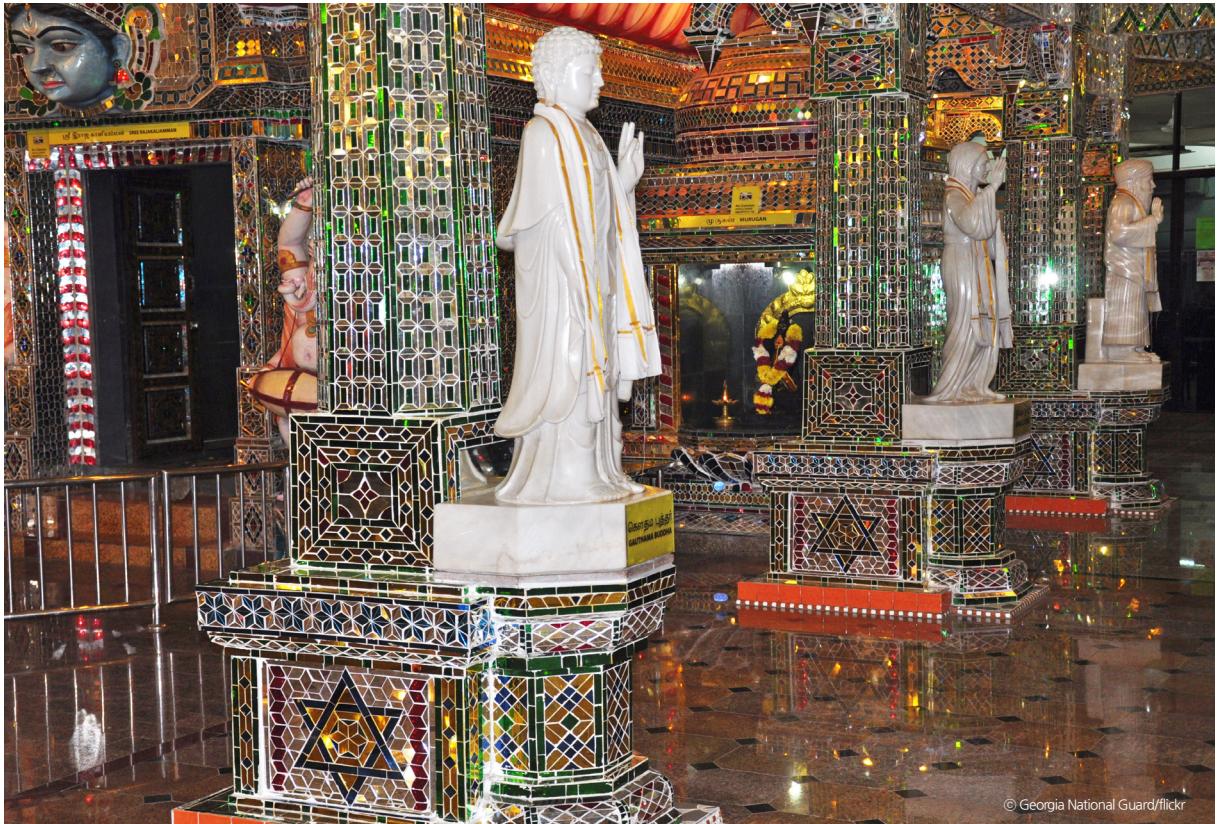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주도 조호르바루의 햇볕은, 신비로운 사원을 장식한 색색깔의 유리 타일에 눈부시게 부서진다. 왕궁과 모스크, 그리고 중국 사원 등 각양각색의 문화유산도 우아하고 수려한 색채를 뿐낸다. 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 앵그리버드 파크, 산리오 헬로 키티 타운 등 다양한 테마파크가 선보이는 원색과 파스텔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활기와 동심이 깨어난다.

조호르바루 시내에서 차를 타고 두 시간여를 달리면, 이국적인 빛깔이 넘쳐흐르는 말라카에 다다른다. 수백 년에 걸쳐 유럽인들이 남긴 흔적들이 네덜란드 광장과 세인트폴 언덕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고, 꽃으로 장식한

트라이쇼 인력거가 그 풍경 속을 달린다. 해상 모스크와 술탄 팔리스는 기품 있는 색채를 더한다.

화려하고 정다운 풍경 위로 어둠이 내리면, 반딧불이의 빛이 반짝인다. 여기에 반딧불이를 보러 교외로 나온 여행자들이 소원을 적어 띠워 올린 풍등의 빛도 은은하게 퍼지면서 조호르바루의 밤하늘에는 낭만과 희망의 빛이 차오른다.

세상 모든 색깔이 살아 숨 쉬는 곳, 그래서 세상 모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조호르바루로 떠나보자.



— 전통 유산의 찬연한 빛

칼리 암만 유리 사원

셀 수 없이 많은 유리 타일 조각들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그리고 순백색으로 빛난다. 만화경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색채의 축제가 온 감각을 깨우고 기슴을 뛰게 한다. 조호르바루에 있는 힌두교 사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칼리 암만 유리 사원의 모습이다.

이 사원이 지금처럼 신비롭고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이다. 사원의 대제사장이 태국 여행 중 유리 공예 작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2008년부터 힌두 사원에 유리 장식을 입히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2009년 10월에 완료되었고, 사원 내부에서 있는 새하얀 대리석 조각상들과 함께 조호르바루의 명물이 되었다.

술탄의 궁전들

런던에서 여왕의 근위병을 볼 수 있듯이, 조호르바루에서는 술탄의 사병들을 볼 수 있다. 조호르바루에 있는 궁전 가운데, 술탄이 거주하는 이스타나 부kit 세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스타나 부kit 세린에는 왕실 행사가 열리는 웅대한 정원과 높이 35미터를 자랑하는 탑, 그리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각들도 있어 조호르바루 여행의 핫플레이스이다.

그랜드 팰리스라고도 불리는 이스타나 베사르도 가보자. 1866년, 조호르바루의 현대화를 이룩한 술탄 아부 바가르 시대에 완공된 이 궁전은, 서구 건축 양식의 푸른 지붕과 말레이 양식의 둑이 어우러져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뽐낸다. 궁전 안에는 20세기 말에 지은 로얄 아부 바카르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 가면 왕실의 가보로 내려오는 귀중품, 왕실 역사의 기록, 각종 유물을 볼 수 있다.



— 반딧불과 소원 풍등

어디까지 수풀이고 어디부터 하늘인지,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맹그로브 지대의 밤. 그 깁깝하고도 상쾌한 풍경 사이로 배를 타고 지나다 보면, 반딧불이를 만난다. 조호르바루 교외에 살고 있는 반딧불이들은 넓적한 이파리에 붙어 크리스마스트리의 조명처럼 반짝이는가 하면,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한다.

반딧불이가 초록빛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사이, 소원을 적은 풍등은 붉고 노란 빛깔을 은은하게 펴뜨린다. 반딧불이 투어 중에는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코스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풍등은 여행자들이 적은 소원과 함께 하늘을 오른다.

반딧불이 투어에서는 풍등 날리기 외에도 전통 과일 시장 방문하기, 팜 트리 공원 관광, 칠리 크랩 등 별미 맛보기와 같은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알록달록 테마파크 —

블록 놀이를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알록달록한 장난감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조호르바루 여행은 더욱 특별해진다! 블록 장난감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레고를 테마로 한 세상이 조호르바루 근교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 탄생한 레고를 테마로 설계된 놀이공원, 워터파크, 그리고 호텔까지 갖추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 중심과 추억의 색채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테마 공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산리오 헬로 키티 타운이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인 키티의 테마파크 중에서, 본고장인 일본을 제외하면 최초로 문을 연 해외 키티 타운이다.

한편 앵그리버드 캐릭터로 꾸며진 앵그리버드 파크도 재미있다. 키티 타운이 전시와 만들기 체험 등 비교적 아기자기하고 정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면, 앵그리버드 파크는 보다 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놀이 공간이 많다.

— 유럽과 말레이시아의 6백년 혼색, 말라카 —



조호르바루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두 시간 거리에, 수백 년 동안 유럽 문화와 말레이시아 문화가 조화를 이뤄온 말라카가 있다. 말라카주의 주도인 말라카는,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아시아 최초의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차지했고, 19세기부터는 영국이 지배하는 등 유럽 각국의 빼고 빼앗기는 식민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말라카는 치열한 역사를 거쳤다.

유럽의 자취 중 하나인 네덜란드 광장에는 유럽 양식의 시계탑과 빅토리아 분수가 말라카 해협의 바닷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서 있다. 이 광장은 여행자들을 핵심 관광 포인트로 안내해주는 트라이쇼 인력거가 대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트라이쇼 인력거에는 파리솔과 꽃 장식이 달려 있어 여행지의 흥취를 더해준다. 광장 근처에는 붉은색 벽돌 마감이 눈에 띠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개신교 교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이 밖에도 세인트폴 교회, 포르투갈인 정착지, 차이나타운 등 이 무역도시를 스쳐갔던 이국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사이에서 말레이시아 전통 유적은 더욱 빛난다. 세인트폴 언덕 아래에서 있는 술탄 팔리스의 회색 외벽은 잔잔한 기품을 드러낸다. 궁전 내에는 1984년에 세워진 왕궁 박물관이 문화 전시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우고 건설한 해상 모스크는 한낮에는 위엄을, 해가 진 뒤에는 서정적인 정취를 자랑한다. 말라카의 이국적인 풍광 위로 노을이 지며 퍼지는 빛깔은, 잊지 못할 감동을 준다.

낙원의 롤리팝 클락



활력과 휴식의 푸른 빛

클락은 푸르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새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거나, 반들반들 윤기나는 진녹색의 열대 식물들이 산과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여 거리에 자리한 푸르른 낙원, 클락. 지대가 높은 편이라 필리핀 내에서는 기후도 서늘한 편이다.

보다 특별한 여유로움과 활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수박 비치로 가서 요트 투어를 해보자. 요트를 타고 새파란 파도와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바다 위를 여행하면, 낙원의 면적은 한없이 넓어진다.

워터파크에 가면 오색 빛깔 워터 슬라이드와 특색 있는 조각상들이 천혜의 녹음과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시원하다.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파도 풀에서 수영을 하면서 얻는 활력은 두말할 것 없다.

푸닝 온천으로 가서 따끈한 휴식을 누리는 것도 좋다. 4륜 구동 차량을 타고 짙은 초록빛 가득한 수풀 사이를 스릴 넘치게 달리면 예닐곱 개의 탕이 모여 있는 온천 단지에 도착한다. 탕마다 온도가 다르고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뜨거운 온천물이 온몸을 풀어주고, 머리 위로는 푸른 산과 야자수의 싱그러움이 듬뿍 쏟아진다.

원색의 물보라 속으로!



물놀이 천국인 클락이 지난 3월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워터파크와 레스토랑, 그리고 쇼핑 공간을 총망라한 아쿠아 플래닛이 문을 연 것! 선명한 원색이 눈길을 사로잡는 워터 슬라이드들이 아찔한 코스로 설계되어 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장을 포함한 25개의 물놀이 기구도 운영 중이다.

포타나 리조트 워터파크도 클락의 대표적인 워터파크이자 필리핀의 캐리비안 베이로 불려온 명성에 걸맞은 흥미로움을 선사한다. 자이언트 워터 슬라이드, 인공 파도 풀, 워터 팩토리 등 물놀이 공간은 물론, 공룡 모형들로 꾸민 테마 공간과 코끼리 조각상을 비롯한 조각 작품 전시 공간 등이 있다.

수빅 비치로 가서 요트 투어를 이용하면,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한껏 누릴 수 있다. 요트를 타고 면바다까지 나가 낚시와 스키스쿠버 등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구비된 선상 뷔페를 즐길 수 있다. 투어 프로그램에 따라 2~3시간 정도를 바다 위에서 보내게 되는데, 요트에 화장실과 침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밤바다 밝히는 야시장과 별미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한나절을 보낸 뒤에는, 야시장에서 로컬 별미와 분위기에 젖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온통 푸르던 낙원에 차츰 어둠이 내리고, 햇빛 대신 거리를 밝힌 야시장의 조명 아래로 라이브 밴드의 음악 소리와 담소 소리가 뒤섞인다.

킹크랩 요리와 바비큐 등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필리핀 맥주 브랜드인 산미구엘까지 곁들이면 더욱 좋다. 여행하는 동안 편하게 입기 좋은 여름 옷과 잡화, 여행의 추억을 남길 기념품을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느덧 겨우 빛을 띠는 밤바다를 앞에 두고, 야시장의 조명 빛이 점점이 빛나고, 운기 자르르한 별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은 낙원의 또 다른 색깔이다.



지니만보

푸테리 하버 편



이달의 지니만보 코스는 환하고 도시적인 색채가 멋진 푸테리 하버이다. 조호르바루가 주도인 조호르주에는 신도시 개발 구역들이 여럿 있다. 푸테리 하버는 그중 누사자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대표하는 풍경 포인트는 바로 요트 정박장. 말끔하게 마련된 정박장을 따라, 파란 바다 위에 새하얀 요트들이 늘어선 모습은 시원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도회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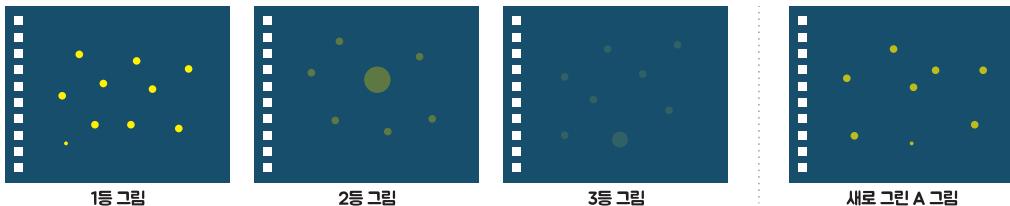
바닷가를 따라 줄지어 있는 감각적인 펍과 레스토랑의 색감은 다채롭고 개성이 넘친다. 산뜻하게 정비된 길을 따라 바다 반대쪽으로 조금 더 걸음을 옮기

면 쇼핑몰과 각종 여가 시설, 그리고 호텔 등이 더욱 눈부신 색깔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쇼핑몰 내부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상상의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히어로와 귀여운 캐릭터를 실물로 만날 수 있는 테마 공간과 캐릭터 전문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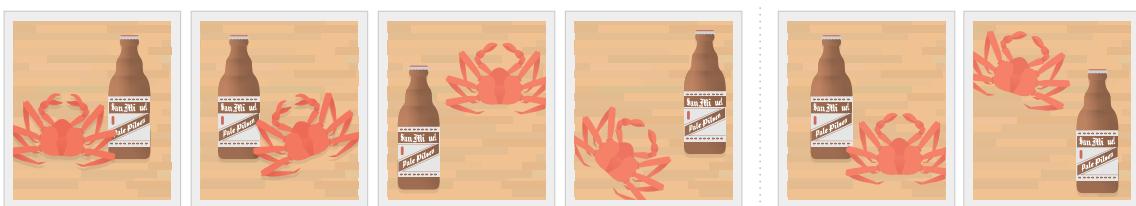
요트 정박장의 하얗고 파란 빛깔, 해안 펍과 레스토랑의 눈부신 활기, 그리고 쇼핑몰과 여가 시설이 밀집한 일대의 형형색색 반짝임... 어느 방향으로 눈을 두고, 어디로 몇 걸음을 옮기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푸테리 하버. 쭉 뻗은 야자수의 녹색 행렬이 여유와 멋을 더한다.

지니퀴즈

Q.1 지니와 친구들은 조호르바루 여행 중 보았던 반딧불이를 그렸습니다. 지니의 동생은 그림을 보고 아래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의 순서를 매겼는데요. 지니의 동생이 순서를 매긴 규칙에 따르면, 지니가 새로 그린 그림 A는 몇 등이 될까요?



Q.2 클락 야시장의 별미인 킹크랩 요리와 산미구엘 맥주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원쪽 네 장의 사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오른쪽 두 장의 사진 A와 B 중에서 한 장만 이와 같은 규칙으로 찍혔습니다. A와 B 가운데 그 한 장의 사진은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사진 A

사진 B

Q.3 아래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맞춰보세요.

				9			13
		6					
3				10			
4			7				
1				8	11		
		5					
					12		
2							

가로

2. 조호르바루에 있는 술탄의 궁전 가운데, 그랜드 팰리스라고 불리는 곳.
4.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네덜란드 광장에 있는 분수의 이름.
6. 클락 근교에 있는 온천 단지. 예닐곱 개의 온천탕과 모래찜질 공간이 있다.
8. 조호르바루에 있는 궁전 중 이스타나 OOOO에는 높이 35미터의 탑이 있다.
9. 말라카에는 바다 위에 다리를 세우고 건설한 모스크인 OOOOO가 있다.
10. 진에어 기내에서 게임, 영화,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이름.
12. 말라카의 이동 수단 중에는 파리솔과 꽃 장식이 달린 OOOO 인력거가 특색 있다.

세로

1.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곤충. 움통에서 빛이 나며 조호르바루 근교 맹그로브 지대에 많이 살고 있다.
3. 클락 근교의 해변, 요트 투어로 사양받는 곳이다.
5. 클락의 OOO 리조트 워터파크에는 자이언트 워터 슬라이드, 인공 파도 풀, 다양한 조각 작품이 있다.
6. 조호르주 누사자야 지역에 있는 OOO 하버에는 요트 선착장, 쇼핑 및 여가 시설, 호텔이 모여 있다.
7. 조호르바루의 현대화를 이룬 지도자이자, 가로 2번의 궁전이 완공된 시대의 술탄.
11. 말라카의 술탄 팰리스는 OOOO 언덕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13. 말레이시아에 있는 개신교 교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은 말라카의 OOOOO처치이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모두 맡기시고 공항으로 떠나세요

Do everyday procedure for departure at Seoul Station City Airport Terminal

공항철도 홍보대사 황 치 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 위치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
- 제공서비스 :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출국심사 (당일 인천공항 출발 국제선 항공편)
- 이용대상 : 직통열차 이용객에 한함
승차권 구입 후,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 05:20 ~ 19:00
출국심사 : 07:00 ~ 19:00
- ※ 이스타항공 및 기타 입주항공사의 탑승수속 마감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항철도 공식 홈페이지 www.arex.or.kr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 수하물 탁송하고 출국심사

공항철도 직통열차타고 43분만에 공항까지~!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용 출국통로 이용

Seoul Station City Airport Terminal

- Location : AREX Seoul Station B2
 - Services : Flight Check-in (Boarding and Baggage Consignment),
Departure inspection (Int'l flights from Incheon Airport)
 - Service Target : Customers who use AREX Express train
City Airport Terminal is available after purchasing train ticket
 - Service Hour : Flight Check-in : 05:20 ~ 19:00
Departure inspection : 07:00 ~ 19:00
- ※ For more information about available airlines and check-in deadlines etc,
visit AREX official website. www.arex.or.kr.

Seoul Station City Airport Terminal Flight Check-in
+ Departure inspection

AREX Express takes only 43min to the airport.

Use the designated entrance at Incheon airport.

JINI Entertainment

진에어 기내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방법!

지니 엔터테인먼트는 진에어가 제공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지니플레이” 앱 설치 후 즐길 수 있습니다.



탑승 전

지니플레이 APP 설치

탑승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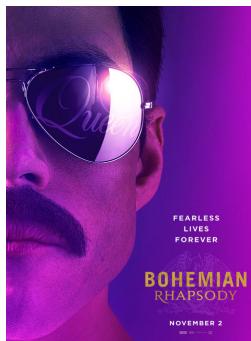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고 Wi-Fi를 켜 후
“JINIPLAY” Wi-Fi로 접속

지니플레이 APP 실행

- 국내선 무료이용
- 국제선 노선별 이용 요금 결제후 사용

- ! - 항공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해야 기기에서 Wi-Fi 연결이 가능합니다.
- iOS APP(아이폰)은 탑승 후 기내에서 APP 설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탑승 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 전 안드로이드 APP(ex. 삼성, LG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니 스토어의 탑승 후 안드로이드 APP 설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 휴대기기의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APP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월 추천 상영작



보헤미안 랩소디
Bohemian Rhapsody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공항 수하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 아웃사이더 ‘파울 버사리’. 로컬 밴드에 들어가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퀸’을 이끌게 된다. 독창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승승장구하던 ‘퀸’은 음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보인 ‘보헤미안 랩소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가 된다. 그러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프레디 머큐리’는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흔들리고, 결국 멤버들과 결별을 선언하는데...



카페윙클
Café Wingcle

윙클이 가게를 오픈 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커피 로스팅! 손님들이 오기 전 기분 좋은 커피향으로 카페를 가득 채워놓는 일이 윙클에게는 너무 즐거운 일이다. SNS를 통해 선호도를 파악할 만큼 신 메뉴개발에 있어선 체계적인 윙클이 일상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개발한 메뉴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것은 윙클의 또 하나의 낙이다. 선물을 준비하듯 늘 정성스럽게 커피와 디저트를 만든다. 그런 윙클의 진실이 묻어나는 향긋한 ‘카페윙클’을 모두 사랑한다.

현재 상영중





진에어 취항지 안내
Jin Air Flight Route Map



JINI Kitchen

JINAIR Signature
Inflight Meal Brand



JINI Kitchen이란 진에어가 새롭게 출시한 사전주문 기내식의 명칭입니다.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진에어 홈페이지/모바일/고객센터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지니 스토어 서비스 책자를 참고해 주세요.